

“액션 연기 도전해보고 싶어요”



‘트랩’ 중역 김비서 역 이주빈

배우 이주빈(30)은 이제 막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기 시작한 신인이다.

작년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계향, KBS 2TV ‘하나뿐인 내편’에서 왕이 룩의 식당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차근차근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4일 오전 광화문에서 만난 이주빈은 전날 종영한 OCN 드라마 ‘트랩’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기회”라고 중역 소감을 밝혔다.

“연기 경력이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비중이 큰 역할은 처음이었어요. 부담도 됐지만, 선배 연기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연기하는 방식을 지켜볼 수 있어서 굉장한 배움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결그립 ‘레인보우’ 연습생 모델 활동하다 연기에 욕심 ‘김비서의 딱딱한 말투는 냉정해 보이려 한 것’

극 중 김비서는 빨대 안경을 쓴 무표정한 비서이지만 극이 진행되며 그의 과거가 하나둘 밝혀진다. 이주빈은 드라마 1~2회에서 딱딱한 대사 처리 때문에 벗어선 ‘연기력 논란’에 대해 “평가는 시청자들의 몫”이라며 담담히 말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신우 감독님께서선 일부러 감정이 없는 냉정한 톤으로 연기하라고 하셔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번 계기로 좀 더 열심히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주빈은 아이돌 연습생 출신으로, 결그

립 ‘레인보우’로 데뷔할 뻔하기도 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때 연기가 뭔지, 아무 생각이 없었다”던 그는 “연습생을 관두고 모델 일을 하면서 배우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모델로 활동할 때 바이럴 광고가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짧게 연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기존 광고들에선 귀엽고 밝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던 반면, 바이럴 광고는 짜증도 내고 성질도 부리고 울기도 하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하다 보니 재밌었고, 연기를 더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의 꿈은 ‘배우 일을 오래 하는 것’이었다. “몸이 건강할 때 액션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특히 여배우에겐 기회가 많은 게 아니니까요. 또 꾸준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연합뉴스

‘하나뿐인 내편’ 시청률 46.2%...50% 기록 쓸까

KBS 2 주말극, 가족에 묵묵히 그려내며 뒷심 발휘

‘하나뿐인 내편’이 종영까지 4회를 앞두고 시청률 46%를 돌파하며 KBS 2 TV 주말극의 힘을 과시했다.

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5분 방송한 이 드라마 시청률은 41.4%~46.2%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달 ‘황금빛 내 인생’이 세운 45.1% 기록을 깼다.

앞서 ‘하나뿐인 내편’은 높은 인기에 6회 연장을 결정, 오는 17일 종영하는 가운데 시청률 50% 대기록을 쓸지 관심이 쏠린다.

전날 대구/구미 지역에서는 46.6%~52.4%로 50% 벽을 깨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50%를 넘는 드라마는 2010년 KBS 2TV ‘제빵왕 김탁구’(50.8%)가 마지막으로, ‘하나뿐인 내편’이 이를 넘게 되면 약 9년 만에 새 기록을 쓰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9월 15일 21.2% 시청률로 출발한 ‘하나뿐인 내편’의 인기는 ‘황금빛 내 인생’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황금빛 내 인생’이 주말극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몰아치는 전개와 재미있는 트릭으로 초중반부터 시청률과 화제성을 장악했다면, ‘하나뿐인 내편’에는 예상하기 어려운 앞날도 복선도 없다.

‘하나뿐인 내편’은 초치일관 가족애를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홈드라마이다. 1980~1990년대 드라마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아날로그한 감성으로 풀어낸 이 드라마는 최근 쏟아지는 트렌디한 드라마 속에서 오히려 차별성을 드러내며 전 연령층을 사로잡았다.

출생의 비밀, 누명, 치매, 고부갈등 등 익숙한 소재와 더불어 전개 방식도 어렵지 않다. 최근 수일(최수종 분·사건)이 고래(박성훈)에게 갇혀 이직하고 혼수 상태에 빠진 내용 역시 그랬다. 인물의 내적갈등이나 감정 표현도 섬세하고 친절하게 보다는 투박스러운 편이다.

그럼에도 정통 홈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의 향수를 자극한 데다 최수종을 비롯해 박성훈, 차화연 등 중견 배우들 열연이 더해지면서 팬층은 두꺼워졌다.

특히 최수종은 기구한 인생의 수일을



절절하게 그려내면서 시청률 고공 행진을 견인, ‘시청률의 제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수종은 앞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인기 비결에 대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 있는 캐릭터들도 모두 우리 주변에 실제로 있는 인물들이라 시청자들이 공감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배우들 열연에 더해 작품부터 KBS 2 TV 주말극에도 도입된 중간광고 성격의 프리미엄CM도 시청률을 올리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최수종이 “결국에는 해피엔딩이길 바란다”고 말했듯이, 남은 4회에 수일이 건강도 회복하고 누명도 벗어 탈 도란(유이)의 박복한 팔자도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5·18 영화 ‘꽃잎’으로 데뷔 ... 이정현 내달 결혼

신랑 3살 연하 정형외과 의사

가수 겸 배우 이정현(39)이 다음 달 7일 결혼한다.

4일 소속사 바나나컬처엔터테인먼트는 이정현의 예비 신랑은 약 1년간 교제한 3살 연하의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 성실하고 자상한 품성을 지녔다고 밝혔다.

이정현도 이날 자신의 SNS에 “제가 연예계에 데뷔한 지도 어느덧 21년이다 되어간다”며 “영원히 일만을 사랑할 것 같았던 저인데 부족한 저에게 한없는 용

기와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평생 함께 하고픈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고 손편지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사랑하는 예비남편은 전문직 일반인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제2의 인생의 막을 올려 행복하게 살아가려 한다”며 “4월 7일 여러분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적었다.

이정현은 또 “결혼 후에 더 깊은 연기로 보답하겠다”며 “영화 ‘두번할까요’(가제),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 부산행 속편인 ‘반도’(가제)로 활발한 활동

보여드리겠다”고 향후 활동 계획도 전했다.

1996년 영화 ‘꽃잎’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한 이정현은 1999년에는 가수로 데뷔했다. ‘와’, ‘바퀴’, ‘줄래’, ‘미쳐’ 등의 히트곡을 연이어 내며 가수로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중국에서 한류 스타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며 영화 ‘명량’(2014), ‘스플릿’(2016), ‘군함도’(2017)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아이템(재)	10 SBS 뉴스 20 SBS 생활경제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재)		00 푸르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1	00 KBS네트워크특선 거북이 뉴스 5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25 뿌까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차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55 뽀뽀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에어로비 55 5 MBC 뉴스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15 차종우돌 전국 유랑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원손잡이 아내	15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덕화티비	5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지복영>			
10	00 3.1운동 100주년 기획 사사기획 창 55 UHD 습터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	00 아이템	00 해치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공사창립특집 인생콘서트	10 일맞춤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50 KBS 뉴스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띠띠뽀 띠띠뽀(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담 교육세상	19:00 미니특공대 X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크 오늘	19:30 EBS 뉴스
07:00 너티니츠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7: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3: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영 유치원1~2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극한 겨울 타기2부 흑해의 선물>
08:30 띠띠뽀 띠띠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탐원 구조대	<오지, 봄이 오지 2부>
09:00 뽀뽀뽀 뽀뽀로	15:45 몬카트	고개너머 무릉도원, 돈너미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6:15 짝과 팡	21:50 EBS 다크프라임
09:40 메디컬 다크 - 7요일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2:45 우리만 이란가
10:30 한국기행	16:45 당동영 유치원1~2	23:5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15 마사와 곰	24:45 지식채널e
<우삼겹 땀이찌개와 마늘중 뽀뽀로볶음>	17:30 로보카 폴리	24:50 한국영화특선 <타워>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丑



寅



卯



辰



巳

36년생 절대적이지 않다. 48년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실행하는 것이 이익이다. 60년생 정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72년생 깊은 의미가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느니라. 84년생 재반 여건이 결합되어 제3의 현상을 야기한다. 행운의 숫자 : 73, 95

37년생 막연한 기대는 위험하다. 49년생 길사로 연결되는 행운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다. 61년생 정도를 걷는 것이 안전하고 빠르다. 73년생 식상함을 거두고 새로운 추구를 하라. 85년생 기존의 틀이 불편하다면 차제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라. 행운의 숫자 : 05, 83

38년생 강력한 절제가 꼭 필요한 지경이다. 50년생 소망이 이루어지려는 찰나에 놓여 있느니라. 62년생 실기된 것을 회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라. 74년생 대인관계와 처세에 공을 들여라. 86년생 길한 소식을 전해 주려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4, 24

39년생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중용이 무난하다. 51년생 수용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 63년생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75년생 형세에 맞는 순발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87년생 수용한다면 나름대로 충분한 역할을 하라. 행운의 숫자 : 28, 79

40년생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52년생 복잡한 문제가 겹쳐서 발생하는 양상이다. 64년생 별의별 방법을 다 써 봐도 헛수고일 뿐이다. 76년생 이루어진 바나 다름없다. 88년생 복선이 도와주는 마당이니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길일이다. 행운의 숫자 : 16, 59

41년생 굳이 자초할 필요까지는 없느니라. 53년생 길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65년생 잘 준수해야 진행에 차질이 없느니라. 77년생 한번 시작 되면 술술 풀려 나갈 것이니라. 89년생 기존의 방법을 써야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89, 46



午



未



申



酉



戌



亥

42년생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니 용감하게 도전해 볼 만하다. 54년생 절차대로 행하는 것이 무난하다. 66년생 유용하리라. 78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위험이 짝을 수 있다. 90년생 어려움은 잠시일 뿐이니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하라. 행운의 숫자 : 10, 04

43년생 매우 허망한 일이 있을 수다. 55년생 일관 된다면 대원성취 할 수 있는 운이니라. 67년생 폭넓은 안목과 식견이 길경을 부르리라. 79년생 절한 활동한다면 상당한 수익으로 연결 될 수도 있겠다. 91년생 벗어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이다. 행운의 숫자 : 56, 11

44년생 반복적인 애로 사항이 보인다. 56년생 의외의 길사가 비치니 기대해 볼만하다. 68년생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다방면에 특이 있다. 80년생 새로운 문어나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리라. 92년생 절실히 필요로 하였던 것이 때맞추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42, 90

45년생 후추라도 탄 마음을 먹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57년생 상부상조를 잘 해 나가자. 69년생 융통성을 발휘하여 파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81년생 상서로운 기운이 비취오고 있다. 93년생 순리를 거스르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2, 08

46년생 공물여왔던 것에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다. 46년생 풍성한 성과의 환희가 있다. 58년생 취약점이 보이거든 합리화시키려 하지 말고 고쳐야 한다. 70년생 치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 될 것이다. 82년생 행간의 의미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2, 82

47년생 지리멸렬한 소강상태의 기간을 지나서 활성화 되리라. 47년생 편견을 가진다면 선입감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 59년생 눈앞에 펼쳐지리라. 71년생 전대미문의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니라. 83년생 바야흐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행운의 숫자 : 98, 9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